



오래된 폐광에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새롭게 변신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콘텐츠가 된 광명동굴이 여름 무더위 도심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다. 광명동굴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되는 미디어파사드 레이저쇼, 자신의 소망을 담은 황금패를 살펴보는 외국인 관광객, 화려한 조명으로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SNS 인증샷 명소로 사랑받는 원홀광장, 여름철 짙은 녹음을 느낄 수 있는 광명동굴 외부(위 사진부터 시계방향)

무더위 탈출? 연중 12도 '동굴 피서'가 있었네

폐광 활용한 다채로운 콘텐츠 눈길
접근성 탁월, 국내외 방문객에 인기
동굴 외부 VR체험·전시관 등 풍성
내달 2일부터 사흘간 여름 축제도

본격적인 삼복더위가 시작되면서 저마다 무더위를 잊게 해줄 시원한 피서지를 찾아 나서고 있다. '휴가철에는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명 피서지를 찾아가는 과정은 만만치 않다. 짜증나는 교통체증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는 북적거림도 각오해야 한다. 예전보다 팍팍해진 주머니 사정이라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피서여행에서도 이제는 '가성비'와 '가심비'가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한다. 요즘 가성비 높은 여름 나들이 명소로 도심 피서지들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 인근에 있는 광명동굴은 그중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저렴한 비용, 소핑과 역사탐방 등의 주변 명소들로 인해 요즘 인기가 높은 곳이다.

광명동굴은 화산활동이나 석회암 침식활동 등의 자연현상으로 만들어진 천연동굴이 아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인

1912년부터 금·은·아연·동 등의 광물을 채굴하던 시흥광산이 모태다. 60년간 광산으로 운영하다가 1972년 폐광했고, 이후 새우젓을 보관하는 것 외에 별다른 활용도를 찾지 못하고 방치됐다.

오랜 세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폐광 시흥광산이 다시 주목을 받은 것은 2011년. 광명시가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로 폐광의 산업유산적 가치와 함께 수도권에서 드문 대형 동굴이라는 특성에 착안했다.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결합해 '광명동굴'로 재탄생시켰다. 2015년부터는 유료화로 전환했고, 이후 수도권권을 대표하는 인기 관광시설이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 2017~2018년과 2019~2020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예술의 전당·황금폭포 등 볼거리 다양

여름 피서지로 광명동굴의 매력은 초대형 천연 에어컨이라 부를 정도로 시원한 내부이다. 외부 기온이 아무리 높아도 내부가 연중 12도를 유지한다. 요즘처럼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에도 이곳을 방문할 때는 가디건이나 바람막이 같은 겹옷을 꼭 챙겨야 할 정도이다.

또한 자연현상으로 생성된 동굴들은

대부분 내부 생태계가 환경이 살아있는 '활굴'이어서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내부 개발에 제한이 있다. 하지만 폐광이었던 광명동굴은 오히려 동굴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광명동굴의 인기 콘텐츠인 빛의 공간, 동굴 예술의 전당, 황금폭포, 황금길, 동굴지하세계, 근대역사관, 와인동굴 등은 생태계가 살아있는 활굴이라면 엄두도 못낼 시설이다.

동굴 외부에도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광명동굴 VR체험관,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LED미디어타워문화예술, 미디어 융복합 아트체험시설 라스코전시관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갖추고 있다.

●편리한 접근성과 다양한 연계관광

콘텐츠 뿐이지 광명동굴이 인기 높은 것은 편리한 접근성과 다양한 연계관광이다.

광명동굴은 서울, 인천과 경기권의 주요 도시에서 차로 1시간 이내면 갈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30분, 도심공항 터미널이 있는 KTX광명역에서는 5분이면 도착한다. 국내 방문객은 물론이고 외국인 방문객들도 입국 후 첫 여행지나 출국 전 마지막 여행지로 찾아올 수 있어 편리하다.

또한 인근에 이케아, 롯데아울렛, 코스트코 등 대형 쇼핑시설이 있고 충현박물관과 기행도문학관, 오리서원 등 문화·역사 명소도 있어 가족과 함께 다양한 일정의 나들이를 계획할 수 있다.

●동굴서 워터 슬라이드…여름축제 진행

광명동굴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9월 1일까지 폐장을 3시간 연장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단 입장권 판매는 관람시간을 고려하여 오후 8시까지로 제한한다.

또한 관내 라스코 전시관에서는 빛의 놀이터 '레인보우 팩토리'를 11월 24까지 운영한다. 이곳도 야간개장 기간에 맞춰 오후 8시까지 연장운영한다. '레인보우 팩토리'는 디지털 놀이시설 '피지탈'(phygital) 스타일의 시설로 3개의 존과 15가지 체험놀이를 갖추고 있다.

또한 8월 2일부터 4일까지는 광명동굴 여름축제도 열린다. 여름축제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빛의 광장에서 워터슬라이드, 미스트존과 스프링 물총·바가지·비치볼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밖에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6월부터 청년창업 푸드 트럭 10대를 운영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한 눈으로 보는 경제

18일

코스피지수	2066.55	↓	-6.37
코스닥지수	665.15	↓	-1.13
日 닛케이 지수	2만1046.24	↓	-422.94
中 상하이 종합	2901.18	↓	-30.52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345	↓	-0.054
환율 (원·달러)	1178.8	↓	-2.5
국내금값 (원/그램)	5만3860.51	↑	+582.78



파비앙 페는 주한프랑스대사, 양무승 서울 관광명예시장, 코린 풀키에 프랑스 관광청 한국 지사장(왼쪽부터). 사진제공 | 프랑스 관광청

양무승 서울 관광명예시장 프랑스 최고 관광 금훈장 수훈

양무승 서울 관광명예시장 겸 한국여행업협회(KATA) 명예회장이 17일 프랑스 대사관저에서 프랑스 정부로부터 프랑스 관광 금훈장(Medaille d'or)을 받았다.

관광 훈장(Medaille du tourisme)은 프랑스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에게 프랑스 관광청(Atout France)의 요청에 따라 프랑스 정부가 심의해 수여하는 명예 훈장이다. 프랑스 정부는 양무승 서울 관광명예시장이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재임 시절 파리 일드프랑스 지역과의 양해각서 체결 등 양국 관광 교류와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관광 훈장에서 최고 명예인 금훈장 수여를 결정했다.

이날 훈장 수여는 파비앙 페는 주한 프랑스 대사가 진행했고, 코린 풀키에 프랑스 관광청 지사장, 서울시 관계자, 여행사 대표들을 비롯한 30여 명의 관광 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김재범 기자

LG전자 20·21일 모바일게임 축제

LG전자는 20일과 21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서 'V50썬큐 게임 페스티벌'을 연다. 2300㎡ 규모의 아이스링크를 카펫으로 덮어 특선전시장을 만들고, 넷마블과 넥슨, 에픽게임즈, 슈퍼셀 등의 게임사와 이통 3사의 전시부스를 마련했다. 인기 모바일게임과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5G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정식 종목은 넷마블의 '킹 오브 파이터 올스타'다. 개인전 우승자는 상금 300만 원과 V50 1대, 단체전 승리팀은 상금 500만 원과 V50 3대를 받는다. 레드벨벳과 우주소년 등 아이돌 그룹의 축하공연도 있다.

김명근 기자

'남도서 만나는 프랑스' 대명 쏘비치 진도 그랜드 오픈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테마 리조트
다도해 전망 오션뷰 객실 총 576개

대명호텔엔리조트가 지중해 남부해안을 테마로 한 리조트 '쏘비치 호텔&리조트 진도'(이하 쏘비치 진도)를 19일 그랜드 오픈한다.

2017년 4월 착공해 2년 3개월 만에 개장하는 쏘비치 진도는 대명호텔엔리조트가 운영하는 17번째 리조트이자 쏘비치 브랜드의 세 번째 리조트다. '쏘비치'는 대명리조트의 '해양테마리조트' 브랜드로서 이번 진도 리조트는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Provence)를 테마로 했다.

총 7만3062㎡의 부지에 호텔 1동, 리조트 2동, 노블 1동, 웰컴센터 등 5개 동으로

이루어졌다. 리조트는 진도의 멋진 해안선과 지형을 고려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을 배치했다. 건물은 클래식한 유럽식 건축양식을 적용했고, 리조트 중심에 다도해를 배경으로 펼쳐진 원형의 프로방스 광장을 조성했다.

총 576개인 객실은 크게 3가지로 리조트 454실, 호텔 98실, 노블 24실이다. 전 객실이 오션뷰로 테라스에서 다도해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웰컴센터 1층에 '베이커리&카페'와 남도의 해산물을 이용한 씨푸드 뷔페인 '셰프스 키친'이 있다. 연회를 쪽에는 무인로봇 카페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그릴하우스(구이전문점), 씨푸드 테이블(로컬푸드), 더펍(치킨앤뎀) 등의 레스토랑이 있다.

요즘 리조트의 핵심시설로 꼽히는 풀은



프랑스 남부 지방 프로방스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쏘비치 진도. 사진제공 | 대명리조트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다도해와 맞닿는 느낌을 주는 인피니티풀로 만들었다. 수용인원은 약 200명이고 밤 11시까지 운영한다. 버섯 모양의 바닥분수가 있는 키즈풀도 있고, 스파존도 2개를 운영한다.

이용객을 위한 다양한 오락시설도 구비했다. 스크린을 이용해 야구 축구 양궁 볼링 컬링 농구, 슈팅게임을 즐기는 '레전드 히어로즈'를 비롯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캔디 슬래시, 블록 팡 등을 갖추고 있다. 이

김재범 기자

코레일, 내달 18일까지 '망상해수욕장역' 임시운영

코레일 강원분부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망상해수욕장역을 임시운영한다.

망상해수욕장에서 20~30m 정도 떨어

진 망상해수욕장역에 이 기간 하루 20회 무궁화호 열차가 정차한다. 열차는 강릉선 KTX가 서는 강릉역에서 출발해 정동진, 망상해수욕장, 동해역까지 간다. 망상해수

욕장 앞에는 명사십리 망상해변과 오토캠핑장, 캐러밴 캠핑장 등 휴양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피서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됐다.

코레일 강원분부는 내일로 티켓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망상해수욕장 튜브루이오

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여름을 맞아 그린플러그드동해2019, 수와진 버스킹공연, 망상해변 불꽃놀이, 전통체험놀이, 전통의상체험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가 망상 해변에서 펼쳐진다.

김재범 기자

랜선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